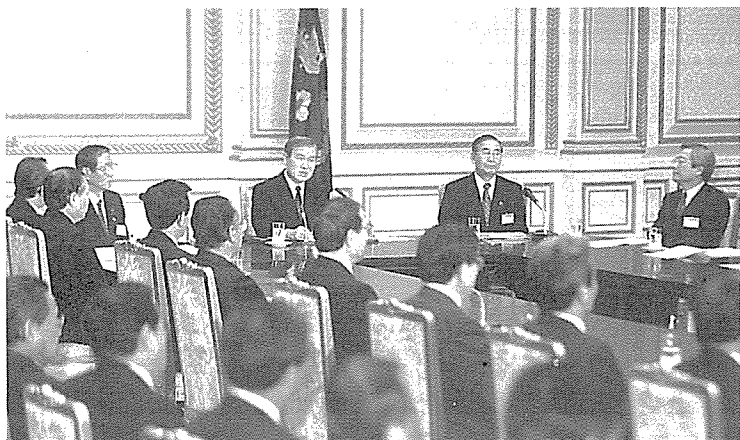


# 科技진흥기금 96년까지 1兆조성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大統領에 보고

## 14개 核心선도 기술개발 집중지원



盧泰愚대통령은 12월19일 『나라의 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으며 그 경쟁력의 핵심요소는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과학기술진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인력과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국통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시 그 대금의 일부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現代자동차李大雲연구위원에게 銅塔산업훈장을 주는 등 6명의 기술개발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다음은 서훈자명단 및 공적사항.

▲李大雲(46·현대자동차 연구위원·동탑산업훈장): 멀티벨브식 α엔진 및 변속기등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수출전략차종인 스쿠프에 탑재, 국제경쟁력을 높였다.

▲金正浩(45·한남화학이사·철탑산업훈장): 신규 폴리머의

개발을 통해 수입원자재의 국산화에 기여했으며 국초내열 HGX수지의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다.

▲朴泰錫(4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국민훈장석류장): 백내장 등 수정체이상으로 시력을 상실한 안과환자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를 개발했다.

▲朴住鐸(41·수산중공업 사장·석탑산업훈장): 유압 브레이크 트럭크레인 및 아스팔트 살포기 등 14개 기종을 연구개발해 91년 수출액에 5백만달러에 달했다.

▲金承澤(36·유니온시스템 부장·산업포장):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문감식업무의 자동화를 이룩했다.

▲文榮浩(33·미래산업기술연구소 개발실장·산업포장):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검사기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 科技투자 2천1년 GNP 5%로 확대 政府-民間 기술개발투자 강력유도

政府는 오는 2000년까지 과학기술 先進 7개국권 진입을 목표로 1기가디램 반도체생산 등 14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을 국가적과제로 추진하고 96년까

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이를 지원키로 했다.

신설되는 과학기술진흥 기금은 현 기초과학기술금을 흡수 통합하고 정부투자기관 배당금

## 과학기술계뉴스

및 주식매각대금 1천6백억원 등 정부출연금 4천8백억원, 과학기술복권발행자금 2천8백50억원, 한국통신출연금 1천억원, 과학재단 출연금 3백억원을 주요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崔珪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金鎮炫과기처장관은 12월19일 청와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과학기술 혁신종합대책」을 盧泰愚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金鎮炫 과기처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시책」 보고를 통해 오는 2000년대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발전을 목표로 1백19개 생산기술 개발계획과 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국산화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오는 96년까지 생산기반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영화수준의 고성명TV를 94년까지 개발하며 공해와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를 96년까지 개발하는 등 14개 핵심선도기술을 치밀하게 개발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술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또 2000년까지 7대 정보통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무선통신기술 등 취약핵심기술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廣帶域통신망 등 차세대종합통신망을 우리 기술로 확보하며 환경, 보건·의료 등 「공공·복지기술」을 발전시

켜 국민생활편익을 증대시키고 기초과학도 2000년경에는 연간 3만편이상의 국제적인 논문이 발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확보방안으로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우수연구집단을 기초과학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을 91년 5백40명에서 96년까지 1천명으로 증원하고 光州과학기술원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과목시간수가 확대되도록 제6차 교육과정개편에 반영하고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와 실험보조원을 증원하여 국민학교에도 과학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산업계 인력양성 확보를 위해 사내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병역특례 연구요원을 92년에는 91년보다 46% 증가된 1천5백7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밖에도 과학기술 정보체계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정보원, 시스템공학연구소, 국방기술정보센터 등 관련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정보담당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세계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과학기술정보 센터를 설립·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의 창의적 연구개

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공로연금, 한국과학상, 장영실상과 같은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우수업적 창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연구기관과 대학연구원의 10~20%를 매년 해외연수시켜 지식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崔珪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보고에서 현재 GNP의 2.12%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투자를 2001년까지 GNP의 5%까지 확대시키는 등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96년까지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G7과제 등에 중점 지원하고 정부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비중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의 3% 수준에서 2천년대초에는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를 자본금 5천억원 규모의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로 확대 개편하여 금융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술개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를 모든 연구요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高城 · 양양 · 蔚珍 · 영일 · 長興 · 태안

## 科技處, 核폐기물처분장후보지 6곳 선정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忠南 泰安군을 비롯 江原 · 慶北에서 각각 2곳, 全南 · 忠南에서 각각 1곳씩 모두 6개지역이 선정됐다.

韓國原子力연구소부설 환경관리센터(소장 申載仁)는 12월 27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연구발표회」를 갖고 적정후보지로 강원 고성 양양, 경북 울진 영일, 전남 장흥, 충남 태안 등 6개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국가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맡고 있는 환경관리센터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서울大 인구문제 및 발전연구소와 한국자원연구소에게 전국 臨海지역과 도서, 폐광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얻어낸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2백10개 도서와 90개 폐광지역을 조사한 결과 도서와 폐광지역은 지질조건에 따른 안전성과 시설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핵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적격지역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이들 임해지역후보지중 과기처가 이미 부지공모를 통해 선정해 놓은 7개 자원지역과 서로 맞아떨어지는 지역을 협의대상지역으로 선정,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6개 후보지역은 다음과 같다. △江原 高城군 현내면 대진리, 청동리, 초도리일대 △江原

襄陽군 현남면 기교리, 북분리, 대치리 일대 △慶北 蔚珍군 기성면 사동리, 삼산리, 마산리 일대 △慶北 迎日군 청하면 이가리, 용두리 일대 △全南 長興군 용산면 상발리, 풍길리 일대 △忠南 泰安군 고남면 고남리, 장곡리 일대

## 科技연구인력 96년까지 11만명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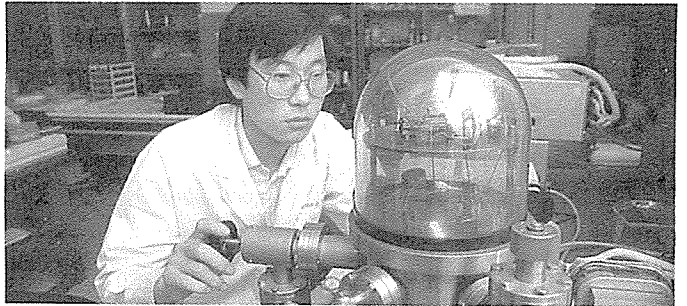
### 제7차 5개년 人力政策부문 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과학 기술연구개발인력을 인구 1만 명당 26명 수준인 11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중 전문대 이상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6만2천명 증원할 계획이다.

기처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백40여만명에 달하는 유휴인력과 25만명의 인력부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수

정부는 2백40여만명에 달하는 유휴인력과 25만명의 인력부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수



또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생비율을 현재의 68대 32에서 95년까지 50대 50으로 조정, 기능인력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 부차원의 인력정책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2월23일 이같은 내 추진하고 여성인력을 최대한 용을 골자로 하는 제7차 5개년 계획 인력정책부문 계획을 과

정부는 또 점차 늘고 있는 고령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탁아소시설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방사성폐기물 관련기술기준 제정

### 科技處, 폐기물처분장 위치기준 등 4개기준

과학기술처는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서 90년 8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분류·수거 및 인도규정」을 제정하는데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위치기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설계기준」,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등 4개 기준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고시하였다.

이중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위치기준」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육지처분시 고려되어야할 지중매물장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기준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중매물장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주요항목으로서는 인구 및 기상조건, 지질학적 상태, 표층수 및 지하수의 분포상태, 생물학적 특성, 지진, 수자원 이용, 기타 제반사회적 여건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위치기준」은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및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중간저장시설의 위치를 판단하는 기술기준으로서 그

주요항목은 안전성 평가, 내진성, 지진이외의 자연현상, 배수, 인위적사고, 화재 및 폭발, 방사선방호, 계측제어, 시설배치, 건설, 시험 및 검사, 폐쇄, 관리 등이 고려되었다.

과기처는 앞으로도 기술기준 개발 장기계획에 따라 '95년말까지 총 24개 기술기준을 적기에 제정·고시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초전도 고주파 共振器

#### 電子通信研서 개발성공

韓國電子通信연구소는 국내

에서 처음으로 고온초전도 單結晶薄膜을 이용한 정보통신용 초전도 고주파 共振器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자통신연구소 기초기술연구부 초전도연구팀이 최근 통신위성에서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막으로 제작된 기존의 마이크로스트립형 공진기보다 마이크로파 대역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고온초전도 박막형 공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초전도 고주파 공진기는 정보통신에서 정보의 손실과 분산을 거의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주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소자를 실현하는데 충분히 차세대 대용량 고속통신시스템의 핵심부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科技處 내년예산 4천억원 확정

### 올보다 11.7% 증가, 특정연구엔 1천3백억 배정

92년도 과학기술처 예산이 91년보다 11.7%나 증가한 3천9백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과기처소관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돼 92년도 정부예산증가율 5.8%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예산 구성내용을 보면 각종 산업의 핵심전략기술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1천3백억원,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 지원육성에 2천3백24억원이 배정되어 전체예산의 91%

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백62억원은 원자력사업, 국제기술협력, 국민이해사업 등 행정지원비와 EXPO정부관 건설 등 과학기술전시사업 경비등으로 쓰이게 된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센터(서울) 건립지원에 16억7천8백만원, 홍릉캠퍼스 첨단학과 설치 12억8천6백만원, 과학기술문화센터(大德) 건설에 49억원 등 총 1백18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 연구조직 3개 研究團으로 改編

### KIST 조직개편, KAIST 政策研도 흡수

韓國과학기술연구원은 기존의 연구조직을 3개 연구단으로 재편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기관인 과학기술정책 연구소를 흡수, 정책·기획본부로 편성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KIST는 12월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1개사업단 5개 센터 5개부를 ▲환경복지기술 연구단 ▲이공학연구단 ▲재료 연구단 등 3개연구단 및 정책기획본부와 연구조정부, 韓·蘇科技센터, 행정부로 재편하고 과학기술원 부설인 과학기술정책 연구소를 KIST 내부조직인 정책기획본부로 흡수하는 기구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환경연구센터, CFC 대체기술센터, 도핑콘트롤센터 등 환경부문의 연구기능을 환경복지기술사업단으로, 정밀화학·공정·기전연구부 및 광전기술센터는 이공학 연구단으로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신소재연구사업단 산하의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정보 등 4개재료연구단을 재료 연구단으로 통합하는 등 연구기능의 획기적인 연계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KAIST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소를 흡수하여 KIST 내부조직인 정책·기획본부를 신설, 공공·기초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기능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정책·기획본부는 •기술예측, 기술수요조사,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동향분석 •공공 기초기술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도출, 과제수행과정 관리·평가 및 연구결과 활용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연구 •연구관리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책·기획본부는 기획·평가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이와함께 연구기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기본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KIST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선임한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KIST의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전문출연연구소와의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한차원 높은 종합·복합연구를 담당토록 한다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 서울에 碩·博士과정 신설 科技院, 산업체인력대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산업체 연구인력 석·박사과정」이 오는 92년 1월 학생선발시험을 거쳐 92년 3월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문을 연다.

이 과정은 정보 및 통신공학과, 자동화 및 설계과학과, 신소재학과 등 3개학과 9개 세부전공에 걸쳐 석사과정 2백명, 박사과정 1백명등 3백명 정도를 뽑게되며 야간수업 등 이수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 강의를 받는 시간제와 현재 근무처를 휴직하고 학위받을 때까지 학

업에 전념하는 전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과정은 서울 캠퍼스에서 만 개설되지만 학위논문연구는 이수자가 소속된 연구소 및 산업체와 大德 KAIST 캠퍼스에서 도 가능하다.

### 새희장에 朴漢奎교수

#### OSIA 정총 및 워크숍 개최

(사)개방형 컴퓨터통신연구회(OSIA)는 12월4일 캐피탈호텔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OSI 기능표준연구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 2년의 새희장에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朴漢奎교수를 선출했다.

## 첨단소재 「팽창흑연」 첫 개발

—資源研, 年70억 수입대체효과—

발암물질로 꼽히는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소재인 「팽창흑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韓國자원연구소 재료공정연구실 鄭鍾熙박사팀은 천연흑연 덩어리를 화학처리·고온열처리하는 방법으로 4백~5백배 팽창시켜 겉보기 비중을 0.005 이하로 낮춘 팽창흑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팽창흑연은 결합체의 첨가 없이도 압축하여 흑연판재로 성형하면 유연성과 복원성이 뛰어나 개스킷으로서의 성능이 기존의 외국제품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팽창흑연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한 내성을 보여 석유·화학제품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발암물질로 일컬어지는 석면질이 쓰이는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을 대체해 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등의 엔진실린더 가스켓은 물론 화력, 원자력발전, 선박, 냉동기 각종 펌프등의 주요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발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연간 50억~70억 원규모의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 壬申年 총공휴일 66일

#### 천문대, 92년도 歷書발간

韓國標準과학연구원 천문대는 1992년도 歷書를 발간했다.

1992년은 壬申年, 원숭이의 해로 단군개국 4325년이 된다. 1992년은 52일의 일요일과 17일의 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추석연휴 포함)을 합하여 총 공휴일수는 69일이 되나 법정공휴일인 삼일절(3월1일)과 식목일(4월5일), 그리고 석가탄신일(5월10일)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실제 공휴일수는 66일이다. 이것은 1991년의 실제공휴일 수 67일보다 1일이 적다. 그리고

2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4회로 신정연휴인 1월1일~2일(수,목)이 있고, 6월6일 현충일(토), 8월15일 광복절(토), 10월3일 개천절(토)이 일요일과 연결되어 있으며, 4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설날연휴인 2월3일~5일(월,화,수)과 추석연휴인 9월10일~12일(목,금,토)이 일요일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2회가 된다.

1992년의 천문현상으로는 일식이 3회, 월식이 2회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2월24일의 부분일식만 볼 수 있다.

금년도 역서에는 日光절약제에 대한 설명과 그 실시년도를 수록하였고 관측자들의 편의를 위해 UBURI 표준성목록을 추

가하였다.

〈한국시청각교육 홍보센터퍼냄·4×6배판·146쪽·4,500원〉

### G7 주관기관 확정

#### 92년 4월까지 보고서제출

2천년대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14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연구기획을 담당할 주관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앞으로 이들 연구기관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각 사업의 개발목표설정, 연구분야 파악 및 세부연구과제 도출, 연구수행방법제시, 예산확보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기업화연구등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담당하게 된다.

G7프로젝트 연구기획을 담당하게된 연구기관들은 내년 4월까지 종합기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처	G7프로젝트명	연구기획수행기관
과거처	인공지능컴퓨터	컴퓨터연구조합
	초고집적반도체	반도체연구조합
	감성공학기술	표준과학연구원
	첨단소재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약·신농약	신약·신농약	신약연구조합
	신기능생물소재	유전공학연구조합
상공부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소
	차세대수송기계	서울대정밀기계 설계공동연구소
	첨단생산시스템	생산기술연구원
동자부	H D T V	생산기술연구원
	신에너지기술	한국전력
통신부	신형원자력기술	한전
	광대역 ISDN	한국통신
환경처	환경공학기술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土木」「水産·林業」분야 보고서 펴내

— 元老 자문단, 韓國 近世科技 100년사중 —

韓國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元老과학기술자문단(단장 金東一)은 최근 韓國近世과학기술 100년사중 5차로 土木분야와 水産·林業분야에 관한 최종 조사연구보고서를 각각 펴냈다.

등 근세 100여년간의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발전과정을 조사·정리하여 현대 토목기술의 위상과 비교, 장래의 기술발전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다.

이 조사연구에는 金亨洙, 朴吉洙, 池啓淳, 申永琦, 黃鶴周, 許瑣씨 등이 참여했다.

19세기말 이후의 수산업기술사를 연구한 水産분야보고서(연구책임자 鄭文基)는 총론에 이어 2장 朝鮮시대후기의 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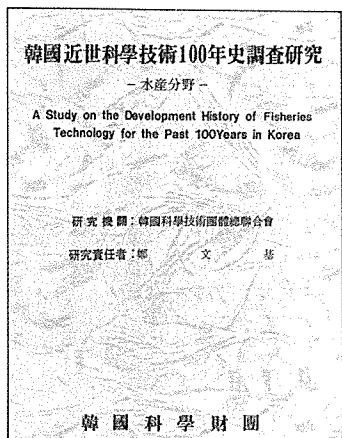
업, 3장 韓末의 수산업실태, 4장 일제시대의 수산업기술 개선, 5장 광복이후의 수산업기술의 변천 발달과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수행자는 朴九秉, 朴丞源, 金仁培씨 등이다.

또한 林業분야보고서(연구책임자 鄭文基)의 내용은 임업기술 발달의 연원을 개관한후 2장에서는 조림기술, 3장 砂防기술, 4장 林産공업기술의 발달사 등 근세 100여년간 우리나라 임업기술의 발전과정을 부문별로 조사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는 金樟洙, 權寧大, 金智文씨 등이 참여했다.

<각 4×6배판 / 토목분야 390쪽·수산분야 238쪽·임업분야 197쪽 /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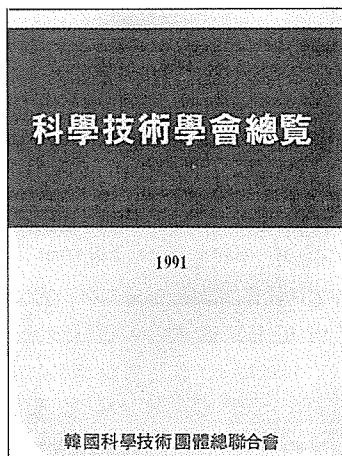


韓國科學財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금년초에 착수, 10개월여의 연구끝에 결실을 맺은 이 보고서는 1987년 전기 섬유분야, 1988년 금속 농업분야, 1989년 기계 광업분야, 1990년 건축 화공분야에 이어 발간된 것이다.

土木분야보고서(연구책임자 安守漢)는 총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교량의 발달사, 3장 하천의 利水와 治水, 4장 항만건설기술의 발전, 5장 철도건설기술, 6장 상하수도 건설, 7장 토질공학과 기초공법, 8장 측지와 측량, 9장 도로의 건설과 교통, 10장 건설 재료, 11장 건설기계와 시공법

91년 「과학기술학회 총람」발간

科總, 253개단체 활동사항 수록



총람」을 발간했다.

91년 12월 현재 科總에 가입해 있는 203개 학회와 50개 관련기관등 총 253개 단체의 활동사항을 수록한 이 총람에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비롯 연혁, 학문분야 소개, 주요추진사업, 연간예산규모, 학술행사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총람에 수록된 학회는 △이학부문 32개 △공학부문 47개 △농수산부문 34개 △보건부문 61개 △종합부문 29개 등이다.

<4×6배판 / 243쪽 / 비매품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펴냄>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대한수학회 등 산하회원 단체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1991 과학기술학회

52개 우수 新開發品 선정 시상

IR52 蔣英實賞 금년도 수상제품으로

IR52 蔣英實賞 1991년 마지막주인 제52주 수상제품으로 韓國화이버가 개발한 「항공기용 복합소재(에폭시 프리프레그)」가 선정됐다.

每日經濟신문사와 韓國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담당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제정, 매주 수여한 이 IR52 蔣英實賞은 첫주 수상제품으로 現代 자동차가 개발하여 실용화한 「 $\alpha$ 1.5엔진 및 트랜지스트」가 선정된 이래 모두 52개 신기술 개발품이 수상했다. 올 蔣英實賞수상제품 및 수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제1주 =  $\alpha$ 엔진 및 트랜스미션<현대자동차> △제2주 = CD 용디지틀신호처리 IC<삼성전자> △제3주 = PE<폴리에스터> 에라스토머<코오롱> △제4주 = 공업용합성다이아몬드<KIST·日進다이아몬드> △제5주 = 스테르드용접로봇시스템<KIST·현대자동차> △제6주 = 전자오르간<금성사> △제7주 = 세파계 항생제 원료 7-ACA<제일제당> △제8주 = PE계 핫펠트접착제<선경인더스트리> △제9주 = 극초내열 HGX 수지<한남화학> △제10주 = 수평형머시닝센터<대우중공업> △제11주 = 분산형공정제어시스템<금성계전> △제12주 = 알파페론<제일제당> △제13주 = 인조

대리석 스토브스<동양나이론> △제14주 = 수평다관절로봇<삼성전자> △제15주 = 지문자동분류검색시스템<유니온시스템> △제16주 = 은행권제작용 요판잉크<한국조폐공사> △제17주 = 종합객실관리시스템<리몽드전자> △제18주 = 3세대간염표면항원<제일제당> △제19주 = 포장박스용 자동제조기<한국기계연구소·영신기계> △제20주 = 梳毛調 신태합섬구조絲<동양폴리에스터> △제21주 = 수치제어식 신발금형전용기<터보테크> △제22주 = 1.5 DOHC엔진<대우자동차> △제23주 = 보고듣는 카셋<나라테크닉스> △제24주 = 슈퍼엔터펠링 혼방복지<제일모직> △제25주 = 수치제어 BTA드릴<신일기계> △제26주 = 인터맥스감마<럭키> △제27주 = 반도체검사기계<미래산업> △제28주 = CD-ROM 드라이브<금성사> △제29주 = 불소수지코팅알루미늄판<星光化學> △제30주 = 光파일링시스템<삼성전자> △제31주 = 소형 CNC선반<기아기공> △제32주 = 에이즈 진단시약<에이즈디아><동아제약> △제33주 = 고속디지틀 다중화장치<삼성전자> △제34주 = 지문인식시스템 매직핑거<크로스엔지니어링·시스템공학연구소> △제35주 = 디지틀오디오테이프레코더<DAT><금성사> △제36주 = 異型부품 삽입로봇<삼성전자> △제37주 = CNC

컨트롤러<금성계전> △제38주 = 슈퍼VHS VTR<삼성전자> △제39주 = 주유소 POS시스템<우주정밀> △제40주 = 호텔페이CATV 시스템<삼성전기> △제41주 = 高흡수성수지<코오롱유화> △제42주 = VCR칩세트<삼성전자> △제43주 = 유니人工수정체<유니머설光學> △제44주 = 에스론페트<易結晶化폴리에스터수지><제일합성> △제45주 = 자동차車輪추적장치<삼성전자> △제46주 = 인조대리석<마블라이트><한국유리공업> △제47주 = NTC서미스터<계코전자> △제48주 = 밀착형이미지센서<삼성전자> △제49주 = 유기高分子 습도센서<三鎳전자공업> △제50주 = 熱轉寫프린터<대우전자부품> △제51주 = 120手순모복지<제일모직> △제52주 = 항공기용 복합재료<한국화이버>

청소년대상 강연회 개최

서울과학관, 겨울방학중

國立서울科學館(관장 林瑾洙)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과 탐구심을 길러주기 위해 올 겨울방학중에 과학강연회 및 공개과학교실을 개최한다.

과학강연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2월26일부터 1월25일까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10회와 8회에 걸쳐 실시한다. 과학공작교실은 과학성적이 우수한 국교 4.5학년 학생을 추천받아 10회를, 학생과학교실은 중학교 2학년 학생중 추천받아 6회에 걸쳐 실시한다.



## 갈륨비소 웨이퍼 國産化성공 金星電線, 美·日이어 3번째로

光素子용 2인치 원형 갈륨비소(GaAs) 웨이퍼가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金星電線(대표 朴元根)은 4년 동안 12억원을 투자, 美·日이어 세계 3번째로 MVGF(Modified Vertical Gradient Freeze)법을 이용한 갈륨비소웨이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MVG법은 최근에 개발된 갈륨비소웨이퍼 제조방식으로 소주병 모양의 트를 거주로 세운 다음에 결정을 키운후 수평으로 잘라 웨이퍼를 만든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의 제조법보다 결함밀도가 낮고 생산성과 품질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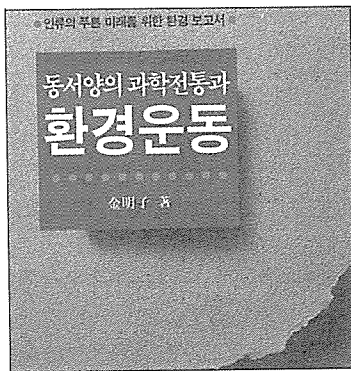
이번에 금성전선이 개발한 갈륨비소웨이퍼는 옥외 전광판용 고휘도발광소자(LED) 및 리모트 컨트롤, 적외선발광소자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 科技도서 15권 선정 文化部 91년 추천도서로

文化部는 91년 한해동안 우리 출판계가 펴낸 책 가운데 1백 11종 1백99권을 「문화부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올해 추천도서는 총류, 역사, 문학, 예술, 종교·철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아동·청소년도서 등 8개분야로 나뉘어 출판사

들이 출판한 책 1천2백42종 1천 8백18권 가운데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도서는 △아인슈타인(제라미번스턴·장희익 편역)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윤권순) △원색 한국담수어도감(최기철외) △컴퓨터피아(백인엽) △원색 실험 관찰대사전(과학부) △조선왕조 官中儀軌 복식(유승욱) △미기체 연소합성(여철현) △郡環論(박재걸) △기술혁신전략(이기종) △영광의 꿈, 도전의 지혜(박익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김태정)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김명자) △만화로 보는 컴퓨터의 세계(이원부) △지리정보론(유근배) △한국의 철새(윤무부)

## 光生物學的 분해성 플라스틱 開發

### 世隆산업·제로化學 공동으로

햇빛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서도 자연 분해돼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光生物學的 분해성플라스틱(일명 담뿌라)이 釜山의 중소기업체에 의해 개발되었다.

世隆産業(대표 黃鎬世)과 제로化學(대표 朴應奎)이 공동으로 이번에 개발한 광생물학적 분해성플라스틱은 기존에 나온 분해성플라스틱이 햇빛에 의해서만 분해되는데 반해 땅속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서도 자연 분해되는 무공해 제품이다.

또한 땅속에서 분해시 알칼리가 작용해 토양의 산성화방

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열시 전혀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해속도도 조절이 가능해 1주일, 1개월, 1년 등 제품별 분해속도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 1차로 각종 상자류를 내놓았으며 2차로 내놓을 상품은 1회용 음료·식품용기를 대체할 제품. 이들 회사는 경남 양산에 공장을 새로 짓고 月産 1백2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월산 2백 40t으로 생산능력을 늘릴 예정이다.

## 産學協同 전문기업 「冠岳 R&D」 설립

### 교수 · 기업대표 함께 첨단기술개발

기업체경영자와 대학교수들이 공동으로 産學협동을 통한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기업을 설립했다.

李哲熙 숭실대정보과학대학원장, 禹治水 서울대교수를 비롯한 1명의 대학교수와 李尙竣 日進電子사장 등 7개 기업체 대표들이 자본금 3억원의 (주)冠岳 R&D를 설립, 12월5일 63빌딩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학계의 석사이상 고급인력을 활용, 산업체가 제시하는 첨단제품과 직결되는 연구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주로 30대인 참여교수가 각 팀을 총괄하며 연구소 및 산업체에 근무하는 40여명의 연구요원을 객원 연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컴퓨터시스템 및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화상처리시스템 △인공지능에 관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전문기술서적 저술 △해외선진기술의 국산화 등이 다.

관악 R&D는 日本의 이젤연구소와 제휴, FA에 필수적인 컴퓨터비전기술을 개발키로 했으며 日進전자, 포스데이타, 한국컴퓨터기기, 하이퍼컴퓨터, 오성전자프로젝트, 삼성연와그

룹, 정익사 등 후원업체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는 특히 연구개발로 얻어진 이익금과 후원업체의 후원금을 적립, 대학의 연구지원과 장학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관악연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 폴리이미드 코팅액 開發

#### 三星종합기술원

三星종합기술원(대표 姜普求)

은 1메가·4메가·16메가 D램 용반도체소자의 회로보호를 위한 폴리이미드 코팅액을 개발했다.

三星이 2년간의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한 이 코팅액은 내흡수성 접착성이 우수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이 0.1PPb(10억분의 1)이하로 알파선 차단효과가 특히 우수한 고순도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폴리이미드코팅액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제품의 개발로 연간 1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三星종합기술원은 이 제품의 개발과 관련, 2건의 해외특허출원을 포함하여 18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내년중 이를 사업화할 계획이다.

## 럭키 첨단기술연구단지 조성

### 大德에 10만평... 99년까지 2천억 投入

럭키는 大德연구단지내에 10만평 규모의 첨단기술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12월18일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럭키 하이테크 리서치파크」는 오는 99년까지 총 2천억원을 투자해 3단계공사를 거쳐 완공될 예정이다.

93년 7월까지 유전공학연구동과 의약품연구동이 1차 완공되며 이어 생활용품·화장품연구동, 정밀화학·고분자연구동을 차례로 완공해 세계적인 중

합연구소 체제를 갖추게 된다.

럭키는 이와함께 오는 2천년까지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겨냥 △조직의 전문화와 특성화 △비교우위의 연구개발력 확보 △신분야탐색연구기능 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현재의 8개 연구소 2개센터의 전문연구소 체제에서 16개연구소 5개 연구센터의 종합연구소체제로 연구개발 기반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인력도 기존 7백명선에서 2천5백여명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심리학회

韓國心理學會(회장 金重述)는 지난 10월25~26일 양일간 중앙대학교에서 총회, 심포지움 및 연차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金重述교수(서울대)가 회장에, 鄭泳濶교수(한국의국어대)가 부회장에 각각 취임했으며, 차기회장으로 李將鎬교수(서울대)를 선출했다.

한편 심포지움에서는 尹振교수(연세대)의 「평생발달심리학적 접근과 인접분야 협력관계」를 비롯 閔庚煥부교수(서울대)의 「사회심리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역사형성에의 참여」등 11편이, 연차학술발표대회에서는 元鎬澤교수(서울대)의 1명의 「정상인의 Rorschach 반응특성-Exner 종합체계에 따라서」를 비롯 崔祥鎭 교수(중앙대)의 「恨」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등 59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 대한신경과학회

大韓神經科學會(회장 金鎭洙)는 지난 11월9일 서울 인터콘티

�탈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金鎭洙교수(연세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1년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이명중교수(울산대)의 「근긴장이상」과 오신중교수(미국, Alabama대학)의 「만성 염증성 탈수성의 다발신경병」 등 2편과 일반연재로 金承賢씨(한림대)의 4명 「Ischemic Stroke 환자에서 MR. Angiography의 임상용 유용성—예비적 연구」를 비롯 尹炳宇임상교수(서울대)의 4명의 「쥐에서의 국소 뇌혈류의 정상치」와 李光雨조교수(서울대)의 7명의 「Mitochondrial 근병증의 임상적 표현형태」 등 5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대한외과학회

大韓外科學會(회장 金鎭福)는 지난 11월8일 서울 하이아트호텔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을 선출, 회장에 金鎭福교수(서울대), 차기회장에 許景渤교수(순천향대), 부회장에 趙榮國교수(전남대)와 尹世玉원장(제일병원)을 각각 선임했는데 임기는 1년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초청강연으로 제임스 톰프슨교수(미국, 텍사스대학)의 「Gastrointestinal 호르몬의 임상적 중요성」 등 2편과 일반연재로 金光演원

장(고려병원)의 3명의 「췌장의 유두상 낭성종양」을 비롯 金相駿교수(서울대)의 2명의 「폐색성 혈전 백관염(T.A.O) 환자에서의 동맥 재건술」과 韓德鍾교수(울산대)의 5명의 「Mouse의 심폐이식에서 NK세포 기능의 관찰」 등 7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대한순환기학회

大韓循環器學會(회장 李迎雨)는 지난 11월29일 서울 웨라튼 위키힐호텔에서 제35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李迎雨교수(서울대)와 부회장에 徐正燮교수(서울대)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또한 학회상 시상에서는 학술상에 朴義顯교수(경북대)와 辛泳祐교수(부산대)가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미첼 헤르만교수(벨기에, 루바인 브루셀대학)의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은후 일반연제발표로 宋在寬교수(울산대)의 4명의 「변이형협심증 진단에 있어 심초음파와 동시에 시행된 Bedside I.V. Ergonovine Test의 경험」을 비롯 김병옥씨(연세대)의 6명의 「경도자적 동맥관개존증폐쇄술」과 金相炯부교수(전남대)의 4명의 「인공판막대치술 후의 용혈」등 77편의 논문과 35편의 포스타 발표가 있었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주조공학회

韓國鑄造工學會(회장 姜春植)는 지난 11월8~9일 양일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16회 정기총회, 추계 학술발표 및 기술강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1년도를 결산하는 학회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공로상에 安斗植사장((주)서울어빈공업), 기술상에 朴洙賢사장((주)대신금속)과 吳世哲사장((주)서울엔지니어링), 논문상에 尹義博교수(한양대)의 4명과 羅享用교수(서울대)의 1명이 각각 수상하였고, 동양철관공업(주)와 한국인닥타섬(주)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초청강연으로 高橋良治씨(일본, 西日本공대)의 「구상흑연주철의 팽창 경향과 저감」등 2편과 일반강연으로 崔正吉씨(생산기술연구원)의 「컴퓨터시물레이션에 의한 구조방안설계기술(응고: 탕류해석)」을 비롯 小田川誠씨((주)중앙발명연구소)의 「합침제 및 합침 시스템의 변모」등 11편 그리고 학술논문발표로 崔昌鉦교수(동아대)의 4명의 「A C4C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구조조건과 열처리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 趙顯麒교수(경북대)의 1명의 「일방향 응고한 Al-Fe-X(X = Ti, Zr) 합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그리고 姜春植교수(서울대)의 1명의 「원심력하에 응고중인 금속의 계

면 관찰」등 16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11개 기업체가 참여한 주물관련자료 전시회도 열렸다.

###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玉正權)는 지난 11월9일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새회장단을 선출, 임기2년의 신임회장에 玉正權대표이사(화학장치), 부회장에 尹和重교수(충남대)·羅貞烈교수(한양대)·陳庸玉교수(경희대)·黃金燦교수(연세대)·金淳協교수(광운대) 등이 선출되었다. 또한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공로상에 黃金燦교수(연세대)와 李性洪사장(B&K 한국지사) 그리고 金富中실장(한국통신)이, 학술상에 金淳協교수(광운대)가, 신진우수논문상에 裴明振교수(호서대)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특별회원패는 동양전자통신(주)와 삼성HP 그리고 감사패는 동방음향(주)와 인공지능연구센터 및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 각각 수여되었다.

한편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崔甲石교수(명지대)의 1명의 「퍼지패턴매칭에 의한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를 비롯 成宏模부교수(서울대)의 2명의 「완전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잠음환경하에서 시스템의 적응 역 모델링」등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韓國照明·電氣設備學會(회장 池哲根)는 지난 11월16일 건축회관 강당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1년도 학회상시상이 있었는데, 공로상에 李廣植교수(영남대)의 3명이 논문상에 金昌燮교수(서울대)의 2명이, 학술상에 張永學씨(목포대)의 5명이, 기술상에 李承洙씨(삼성전관종합연구소)의 2명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학술행사로 초청강연과 학술발표회가 있었는데, 鄭聖于씨(한국바이오테크(주)대표)의 「원적외선의 개요」에 관한 초청강연과 李東仁교수(영남대)의 4명의 「온도변화를 고려한 유동공기의 방전 특성에 관한 연구」등 15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동학회는 11월8~9일 양일간 건축회관에서 원적외선 방사세라믹스 응용기술교육을 실시했는데, 池哲根교수(서울대)가 「원적외선의 특성과 효과」, 崔泰燮공업연구소(국립공업시험원 도자기시험소)가 「원적외선의 방사성측정」, 梁俊煥실장(한국자원연구소)이 「원적외선 방사체세라믹스」, 李陽熙회장(명지대)이 「원적외선 응용」 그리고 鄭聖于대표(한국바이오테크(주))가 「일본 및 한국에서의 원적외선 응용사례」에 관하여 강연했다.

## 과학기술계뉴스

### 과총회원단체 '92년도 국제학술행사 일정

행 사 명	학 회 명	일 자	장 소	참가국
대수기하학 관련분야 국제심포지움	대한수학회	2.11-13	인하대학교	5개국
'92국제화학플랜트 심포지움	한국화학공학회	4.16-20	한국종합전시장	4개국
한·일구조물 최적화에 관한 공동세미나	한국전산구조공학회	5.17-18	연세대학교	2개국
심근이온통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대한생리학회	5.20	미 정	4개국
돼지 질병방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대한수의학회	5.22-23	한국마사회	3개국
제2차 아시아 임상병리학회 및 제9차 한일임상 병리학회 학술회의	대한임상병리학회	5.28-30	제주신라호텔	10개국
초지개발과 사초공급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한국초지학회	6. 6- 7	서울대학교	4개국
선천성 대사질환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한국유전학회	6. 8- 9	서울대학교	10개국
제6차 한·중·일 품질관리 심포지움	한국품질관리학회	7. 9-11	서울교육문화회관	3개국
제4차 아시아동굴학 심포지움	한국동굴학회	7. 9-12	건국대	5개국
'92한·일 합동학술회의	대한전자공학회	7.27-28	동국대학교(경주)	2개국
동북아시아의 고생물사건, 생물층서 및 고생물 구에 대한 국제심포지움	한국고생물학회	7월	서울대학교	3개국
환경·인간 그리고 해충관리에관한 국제학술회의	한국응용곤충학회	10. 9-10	서울대학교	7개국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대한교통학회	10.11-13	세종문화회관	4개국
농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심포지움	한국농화학회	10.16-17	서울교육문화회관	5개국
제8회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기술에 관한 환경기 술 국제심포지움	한국폐기물학회	10.18-19	부산 동아대학교	6개국
물리학과 첨단기술 국제심포지움	한국물리학회	10.22-25	서울대학교	10개국
한·일 약리학 심포지움	대한약리학회	10.23-24	광주시	2개국
암 및 대사질환연구의 최근진보 국제학술회의	대한약학회	10.23-24	충남대학교	5개국
식품 신소재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한국식품과학회	11. 3- 8	여의도 전경련회관	5개국
기능성식품의 유효성 및 안정성 국제학술회의	한국식품위생학회	11.27	서울교육문화회관	3개국
신의약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한국독성학회	11.27-28	서울교육문화회관	5개국
제18회 국제펠프· 종이기술세미나	한국펠프· 종이공학회	11월	한국종합전시장	5개국
'92국제스포츠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한국체육학회	7월	올림픽회관	4개국
제19차 선박유체역학 심포지움	한국조선학회	8.23-28	서울 롯데호텔	21개국
제3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대한초음파의학회	8.30-9.3	서울 힐튼호텔	18개국
세계조경가대회	한국조경학회	8.31-9.4	서울·경주	51개국
초등과학학습지도 방법개선에 관한 워크숍	한국과학교육학회	8월	한국교원대학교	3개국
Fine Ceramics. 성형 및 가공에 관한 한·일 심포지움	한국정밀공학회	9.24-25	한국종합전시장	2개국
제1회 아시아작물연합회 학술회의	한국작물학회	9.24-28	서울 올림픽유스호스텔	12개국
제7회 학교보건한국제학술심포지움	한국학교보건학회	9.25-26	쉐라톤위커킬호텔	4개국
통일을 대비한 국토재편성 방향 국제심포지움	대한지리학회	9.25-30	서울대학교	6개국

## 과학기술계뉴스

행 사 명	학 회 명	일 자	장 소	참가국
수치예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한국기상학회	9월	서울대학교	5개국
한국군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아시아군학심포지움	한국군학회	9월	서울대학교	12개국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민합동체계에 관한 국제 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9월	미 정	5개국
12차 아세아-태평양 홍부질환학회 국제환경보건학술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위생학회	10. 4-7 10.9	쉐라톤위커킬호텔 국립환경연구원	33개국 4개국

### \* \* \* \* \*

## 공기조화냉동공학회

### \* \* \* \* \*

空氣調和冷凍工學會(회장 李春植)는 지난 11월22일 KOEX 국제회의실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에 李春植 부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부회장에 朴喜鎔 교수(한양대)와 朴容漢 사장(성아기술사)을 각각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기술상을 金永浩 대표이사((주)정우하이텍)가, 학술상을 金鍾輔 교수(인하대)가 수상하였으며 학회발전에 공이 큰 김병안 부장(대한주택공사)에게 감사패가, 대연보이러, 복숭아벨브, 신영설비기연사에는 감사패가 각각 수여되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金錫賢 교수(국민대)의 「화학적 냉동사이클의 원리 및 응용」에 관한 강연과 일반발표로 權純錫 교수(동아대)의 2명의 「밀폐공간내에 있는 고온부로부터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비롯 姜信榮 부교수(서울대)의 1명의 「원추형 디퓨저내의 난류유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그리고 趙江

來 교수(연세대)의 2명의 「VE기법을 이용한 원가절감의 실증적 연구—냉동공조업체 A사의 사례를 중심으로」등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 \* \* \* \*

## 한국부식학회

### \* \* \* \* \*

韓國腐蝕學會(회장 金冕燮)는 지난 11월8~9일 양일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창립20주년기념 특별강연 및 논문발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있는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학술상을 李範性 교수(인하대), 공로상을 金民濟 씨(전인터내셔널 사장), 기술상을 朴政治 이사장(동양방직), 논문상을 朴庸秀 교수(연세대)가 각각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金吉弘 교수(이화여대)에게 증정되었다.

한편 특별강연에서는 朴庸秀 교수(연세대)의 「초내식성 스테인레스강의 개발」을 비롯 金奎泳 교수(포항공대)의 「엔진 및 발전기 구조용 고온 금속재료의 내식코팅 기술개발 현황」등 11편이, 연구논문발표에서는 林祐祖 교수(부산수산대)의 3명의 「피복에 의한 연강의 부식피로

균열 거동에 관한 연구」를 비롯 邊秀一 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2명의 「인산용액내에서 탄소전극의 양극거동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과 李鎭烈 씨(해양대)의 3명의 「베어링재의 cavitation 침식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및 음극방식의 특성」등 2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 \* \* \* \*

## 한국지반공학회

### \* \* \* \* \*

韓國地盤工學會(회장 金翺圭)는 지난 11월22~23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강당에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반공학에서의 컴퓨터 활용」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초청강연으로 李丙海 교수(한양대)의 「건설업에 있어서의 컴퓨터이용」과 일반발표로 金文謙 부교수(연세대)의 1명의 「암반질리와 시공단계를 고려한 지하구조체의 해석」등 2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동학회는 학회사무실을 12월30일자로 강남구 역삼동 776-13에 위치한 晟元빌딩 701호로 옮겼다(Tel : 564-4428, Fax : 565-7379).

한국역학회

韓國疫學會(회장 廉容泰)는 지난 11월22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廉容泰교수(고려대), 부회장에 孟光鎬교수(가톨릭대)를 각각 선출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콜레라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李晟雨원장(국립보건원)의 「콜레라의 세계적인 발생에 대한 최신지견」과 金貞順교수(서울대)의 「우리나라 콜레라 유행의 역사적 고찰」 그리고 吳熙哲교수(연세대)의 「1991년 우리나라에 유행한 콜레라의 역학적 특성」 등이 발표됐다.

또한 학술발표회에선 朴正漢교수(경북대)의 1명의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흡연율과 흡연에 관한 지식 및 태도조사」와 崔普律교수(한양대)의 5명의 「대규모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의 랩토스피로시스 감염력에 대한 연구」등 8편의 일반연제발표와 2편의 지상발표가 있었다.

한국생약학회

韓國生藥學會(회장 金泰姬)는 지난 12월6일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정관 규정에 따라 91년도 수석부회

장인 金泰熙교수(숙명여대)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수석부회장에 丁明鉉교수(조선대)를 인준하였으며, 부회장에 申國鉉교수(서울대)와 金鍾源교수(효성여대)를 임명했는데 임기는 1년이다. 또한 학회상 시상에서는 李京淳교수(충북대)가 학술상을, 崔再洙교수(부산수산대)가 우수논문상을, 張承燁연구관(국립보건원)이 남강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韓德龍교수(중앙대)의 「생약 해동피류의 배당체 성분에 관하여」등 3편과 구두발표로 申國鉉교수(서울대)의 2명의 「HPLC에 의한 식방풍종의 Peucedanol 정량분석」등 19편 그리고 포스타발표로 陸昌洙교수(경희대)의 2명의 「쑥부쟁이의 성분연구」등 18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한국영양학회

韓國營養學會(회장 蔡範錫)는 지난 11월1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蔡範錫현회장은 유임되고 부회장에는 金美京교수(이화여대)와 文秀才교수(연세대), 許甲範교수(연세대)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학술상 본상에는 柳春熙교수(상명여대)의 4명이, 장려상은 尹眞淑교수(계명대)의 1명이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權赫姬과장(국립보건원)의 「Dietary Fiber의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등 3편의 특별강연과 池奎萬교수(고려대)의 1명의 「병아리에서 필수지방산결핍이 체내 지방산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 梁一仙교수(연세대)의 1명의 「워크샘플링(Work Sampling)에 의한 병원급식의 작업측정 사례연구」등 32편의 일반연제가 발표되었다.

한편 동학회는 학회 사무실을 숙명여대 가정대학 식품영양과(Tel : 710-9466, Fax : 716-3845)로 옮겼다.

한국윤활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安明柱)는 지난 11월15일 제14회 학술강연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安明柱부사장((주)유공)을, 부회장에 金柱恒전무(한전유화공업(주))와 韓東哲교수(서울대)를 각각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학술강연회에서는 權五寬소장(KIST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의 「소련과의 기계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초청강연과 일반발표로 李得雨박사(한국기계연구소)의 「난류영역에서 운전되는 유한폭저어닐베어링에서의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金世喆씨(전북대)의 「Engine Piston Ring의 윤활특성」등 7편이 논문이 발표되었다.